

2017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서



우리는 70여 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동의하며, 또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분명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절 대한민국은 난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국제 협약에 조인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2001년 최초의 난민을 인정 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보호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여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존재하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이주자들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로 더욱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문제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에 난민인권센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게 없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꾸어 오는 것이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가질 때는 먼저 어디서 꾸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좋은 곳, 아름다운 사람으로부터 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곳,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 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또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곳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2009년 3월 24일의 창립선언문을 다시 떠올리며,
2018. 3. 24. 난민인권센터

소개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인권침해사례에 맞선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모든 인류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

권리중심 제도개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기반으로, 난민심사와 처우전반의 제도를 살핍니다. 제도의 공백과 모순을 바로잡는 난센의 핵심 활동입니다.

연간 난민 현황 분석 / 난민 관련 예산, 행정 감시 / 입법, 개정운동 / 관련 정책 시정 요구 / 난민 권리상담 / 자원 연계 및 지원 / 인권침해 사례 대응

시민함께 가치확산

난민의 권리 확장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가치확산 활동을 합니다. 난민과 시민의 접점을 만들고, 자발적인 옹호 활동의 장을 마련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비폭력행동 / 언론 활동과 감시 /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등 시민 교육 프로그램 / 난민 당사자 정치 활동 동행 / 난민에세이 프로젝트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보노변호사네트워크 / 회원,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난센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소셜임팩트프레임워크 구축 / 사회적 영향 평가 / 재정보고와 윤리적 조직 운영 / 활동가보호 / 노동환경 개선



발자취

- 4월
 - 제 9차 총회
 - 2016.12월기준 난민현황 통계분석 및 발표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구축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자문
- 5월
 - 로펌공익네트워크 간담회
 - 난민 아동 가정 방문
- 6월
 - 재정안정화프로젝트 시작
 - 세계 난민의 날 영화제 공동 개최
 - 인권영화제 참여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구 협력
 - LUSH 캠페인 <ALL ARE WELCOME> 진행
 -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강의 시작
- 7월
 - 19차 운영위원회
 - 법제연구원 난민법 사후평가 NGO워크샵 발제
 -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관련 인권위 진정
 - 신규 자원활동가 모집
- 8월
 - 법제연구원 난민제도 현황 토론회
 - 로펌공익네트워크 업무협약
- 9월
 - 김연주 활동가 사무국장 체제 시작
 - 이현주, 구소연 활동가 활동 시작
 - 난민의 인권과 사법 포럼 발제
 - 서울행정법원 간담회, 정책 개선 요구
 -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간담회, 난민 정책 요구
 - 서울시 <난민에세이사업> 시작
- 10월
 - 법무부 난민과 간담회 난민법 개정 요구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민교육 진행
 - 지정기부금단체 미지정 관련 소송 제기
 - 구금 인권침해 사례 개입
 - 로펌공익네트워크 케이스 연계 시작
- 11월
 - 아랍어 허위 통역관련 언론제보, 당사자 면담
 - 서울고등법원 간담회 정책개선 요구
 - 시민/회원 함께 생각작업장 진행
- 12월
 - 난민 처우 관련 정책 개선 연대 구축
 - 난민 아동 인권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포럼 발제
 - 활동가보호지침 마련 및 운영체계 구축
 - 20차 운영위원회
- 1월
 - 난민네트워크 난민법 개정안 마련
 - 재정착난민 포럼 참여
- 2월
 - 활동가보호 워크샵 운영 시작
 - 난민신청 접수거부 개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난민분야 공동의제 마련
 -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사업 평가 워크샵 참여
 - 인액터스 난민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문
 - 소수자난민인권 가이드북 발간
 - 혁신 wifi 노무 컨설팅
- 3월
 - 고은지 활동가 사무국장 체제시작
 - 2017.12월기준 난민현황 통계분석 및 발표
 - 난민에세이집 <안녕, 한국!> 발간
 -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 법무부 난민아동사업 자문
 - 난민네트워크 워크숍 참여
 - 시리아학살반대 캠페인 공동행동
 - 서울시 난민보호사업 신청

주요 활동



권리중심 제도개선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만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난민 인권센터(이하 난센)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 하고, 사람이 우선되고 그저 누려 마땅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2009년부터 권리침해 사례에 개입하여 난민의 요구를 모으고,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과 행정 운영, 난민 관련 통계를 분석합니다. 더불어 언론보도와 비폭력행동 등으로 정부에 올바른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2017.12.31기준 통계자료집 발간 법무부 예산분석 난민법 개정 TF 난민처우 TF	난민 귀화관련 제도개선 시작 인도적체류 지위자 처우 제도개선 시작	난민현황 통계발표회 보도자료 배포 난민인정자 처우 정책 실태 보고대회	제도개선 의제 평가 및 하반기 의제 설정 사법심사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난민 분야 참여	난민신청자 구금이슈 의제화	연간 제도개선 성과평가 및 의제설정

제도개선 활동보고

2017년

- 4월 2016.12월 기준 국내난민, 심사, 처우 관련 통계 분석 및 시각화
- 5월 UPR 난민분야 자문 통해 난민, 인도적체류자 처우 권리 포함 제언
- 6월 2017.4월 기준 국내난민현황 통계분석 및 시각화, 12월 기준 포함 약 3,000건 이상 조희
- 7월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에 대한 인권위 진정 연대 참여
- 8월 법제연구원 난민법사후평가 NGO워크숍 통해 난민인정절차 현황 및 개선방향 발제
- 9월 난민의 인권과 사법 포럼에 참여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난민의 인권 문제점 정리 및 제기
3차 외국인기본계획 법무부 간담회 참여하여 국내 난민 현황 발제
- 10월 법무부 간담회 통해 난민법 개정 요구, 구금인권침해 사례 개입
- 12월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포럼에서 난민과 미등록아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
난민 처우 네트워크 구축 및 구성원 모집, 활동목표 설정, 정책 현황 및 법 개정안 마련

2018년

- 1월 난민네트워크 난민법 개정안 마련, 재정착난민포럼 참여 행정감시
- 2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난민 분야 인정자 처우권리 요구, 난민네트워크 안 마련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통해 전달
- 3월 난민네트워크 월간 회의 참여 현안 공유, 1회 워크숍 통해 난민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 대정부 활동 관련 제언 등 활동방향 논의
법무부 난민 아동 예산 관련 정책 제언, 난민 처우 권리를 위한 복지부, 여가부 등의 기타 정부 부처 역할 강화 필요 설득, 2017.12월 기준 국내난민현황, 심사 관련 통계 분석 및 공유

2018년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어왔던 난민의 처우 권리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금, 인도적 체류, 귀화, 장애인, 성소수자, 통역 등과 관련한 이슈를 집중 의제로 두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 통계 분석을 연간 분석으로 전환하고, 각 관련된 예산/행정 감시와 연대 활동을 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에 난민의 확장된 권리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난민권리 활동보고

〈분류별 활동 공유〉

활동분류	세부내용	인원
법무부 난민심사	신청, 면담, 재신청,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권리 상담, 국가정보보호사, 가이드라인 제공, 자료 검토, 면담 주의사항 안내 및 준비, 접수거부, 폭언 등 심사 과정 인권 침해 사례 개입, 통번역 연계	64
사법부 난민심사	행정소송 절차/권리 상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소송연계 협력, 통번역 연계, 소장(항소, 상고장) 접수 및 소송구조 신청 등 각종 절차 협력	50
공항만 외부심사	회부심사 절차/권리 상담, 불회부처분 취소 소송, 소송 연계, 재입국 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 개입	3
외국인 보호소 구금	구금 시 권리 상담, 법률/의료 등 보호소 내 의견 전달, 난민인정 절차/권리 상담 및 사례 개입, 위법한 구금에 대한 소송 등 대응, 보호일시해제 청구 등 화성외국인보호소 비정기 방문 상담 및 소송연계	50
기타법률	사기피해, 임금체불 등 민형사사건 권리, 절차 상담 및 개입, 신청자 신분증 회수 등 인권침해 사례 개입,	21
생활/의료	체류, 주거, 혼인, 자녀, 노동, 산재, 가족결합, 출국, 생계비, 교육, 귀화, 인정자, 무국적, 인도적체류, 행정, 경력인정, 장학, 의복, 사회보장,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언어, 정치, 커뮤니티, 본국귀환, 삶 등 상담 및 권리침해 사례 개입, 자원 연계 / 건강 검진, 통역, 심리상담, 출산, 수술, 입원, 치료, 의료행정, 의료비지원, 병원연계, 사회보험, 사망·장례 등 상담 및 권리침해 사례 개입, 자원연계	146

계 331

〈지출 목적별 활동 공유〉

사람	목적	금액(원)
마흔 사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위해 양육, 보육, 교육비 지출 (세이브더칠드런)	36,716,500
한 사람	안전한 공간에 머물 권리를 위해 긴급 생활대출 및 생활비 지출	1,176,100
여덟 사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위해 약, 치료비 지출	215,300
한 사람	아프면 병원에 갈 권리를 위해 치료비 지출	810,780

〈활동 사례 공유〉

인도적 체류자인 H님은 요즘 몸이 자주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본국에 혼자 남은 아내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아닌 인도적체류허가자는 ‘가족결합’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H님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 3국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라도 오고 싶어하셨는데, 출국이 지위에 영향을 줄까봐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난센은 법무부에 출국가능여부를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적체류자는 건강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H님도 의료비에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셨는데요, T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님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몇몇 사람을 모았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아도 수년간 변하지 않는 지옥 같은 현실에, 자신들의 상황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절차를 모르고, 특정 국적과 종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네트워크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겠냐며 난센에 연락주셨습니다. 난센은 이들의 활동을 다른 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공동행동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직접행동을 위해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욕심부리기 보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에라도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따뜻한 차 한잔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넉넉히 둘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난센이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디론가 흩어져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인정되고 꾸준히 아카이브 되어 한국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난센이 아닌 난민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난민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와 현금지원은 최소화하며 난민과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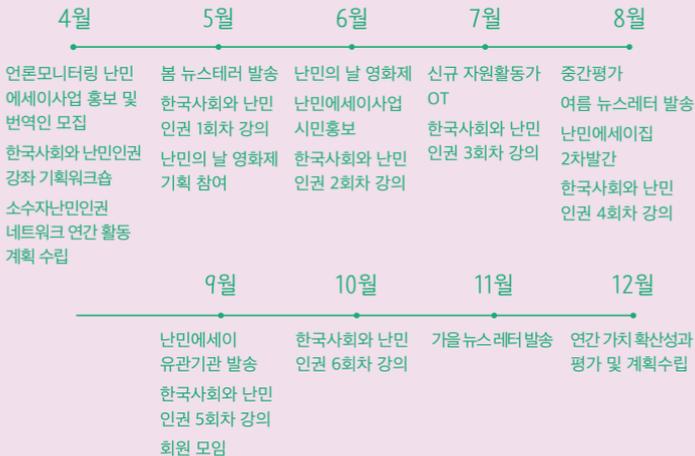
시민함께 가치확산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25년 째이지만, 여전히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부족합니다. ‘전세난민’, ‘난민팔뚝’과 같은 난민에 대한 부적절한 은유가 언론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마주치곤 합니다.

난센은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동료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조직이나 동료시민과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를 촘촘하게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난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더 많은 동료시민이 가치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



시민함께 활동보고

2017년

4월	난센 홈페이지 시민 정기 기고, 총 20편 게재
5월	로펌공익네트워크 간담회 난민소송실태 공유 후 협력, 소송 연계 네트워크 구축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내난민아동연구 제언 및 코디
7월	자원활동가(통번역 및 일반) 47명 활동 시작
9월	난민 에세이 시민 참여 총 20명, 에세이집 <안녕, 한국!> 발간, 관련 컨텐츠 누적 6,000건 노출
11월	난센 홈페이지 컨텐츠 영문 번역 시작

2018년

3월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요구안 난민과 함께 마련, 시민 300여명 공동행동
----	--

난센과 함께 연대하였거나
활동자문을 구한 **기관 수**

114개

난센과 함께 연대하였거나
활동자문을 구한 **이주민 수**

63명

난센과 함께 연대하였거나
활동자문을 구한 **비이주민 수**

645명

가치확산 활동보고

2017년

6월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시민공개 교육, 난민관련 국제정치, 정치철학, 인권침해실태 등 주제별 교육 10회 진행, e-book 발간, 회원 등 참여시민 약 250 여명

난민영화제, 인권영화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자원활동가 초대, GV 및 캠페인 통해 난민 현황 및 가치 확산. 시민 약 500여 명 참가 및 함께 활동.

러쉬 <ALL ARE WELCOME> 캠페인 전국 매장 캠페이너, VIP 이해관계자 200여 명 교육 및 채러티 팻 영상 캠페인 진행, 가치확산 활동 등

11월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생각작업장> 인권강좌 수강생, 회원과 함께 난민이슈와 관련한 관심과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 진행, 10명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실천 고민

12월 방송통신중학교, 한국사회봉사협의회 등 한국 난민인권 현실 교육, 약 30여명 시민 참여

2018년

2월 동료시민이 개발하는 난민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제작 참여하여 앱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콘텐츠 내용 제언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사업과 관련한 평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하여 향후 난민아동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동료시민과 민주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

페이스북에 [활동ON] 코너를 개시하여 난센 사무국의 활동을 수시로 공유

3월 시리아학살반대를 위하여 팔레스타인연대,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나눔문화, 피스모모 등의 단체와 공동 행동, 국내 시리아난민 메시지 전달 및 국내 시리아난민 권리 회복 촉구

오른옴음,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 등 난민인권 현실 교육, 약 40여명 시민 참여

난센의 가치확산
활동에 참여한 시민 수

약 1,000명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횟수

231,715회

난센의 콘텐츠를
좋아한 수

1,095개

난센과 함께하는 동료시민에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비이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후원을 통해 난센과 연대하는 회원, 자원 활동 등을 통해 함께 연대하는 동료시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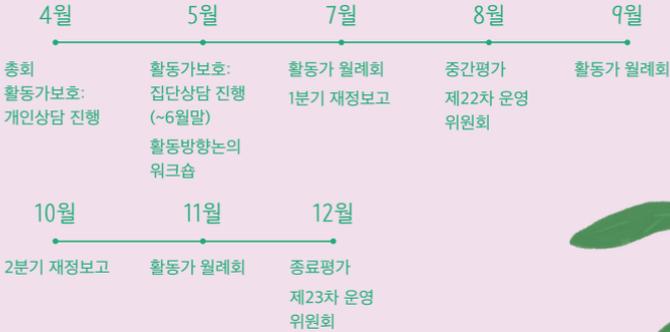
2018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난센 활동에 연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난센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 난민옹호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활동의 장을 잇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언론감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치기반 조직역량강화

난민인권센터의 '지속가능성'은 난센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길목이자,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활동의 경험이 조직에 공유되고 녹아 들 수 있도록, 단체의 탄탄한 구조와 투명한 운영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난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



조직역량강화 활동보고

2017년

4월	난민 상담, 활동 내용 등 내부 기록체계 보완
	총회 : 신입 대표(김규환)와 감사(오승민,이탁건), 운영위원(김세진,이다은, 이승훈) 선출 / 19차 운영위원회 통한 신규 운영위원 만남과 교육
6월~	재정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회계감사와 재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재정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재정보고의 이해와 투명성 확보
7월	1분기 재정보고 활동가 보호 : 지침과 폭력 및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9월	기부금 재지정 신청
10월	2분기 재정보고 기부금지정 거부에 대해 민원제기(국민신문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하여 해결책 강구, 지정 거부에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검토하여 취소 소송 제기
12월	20차 운영위원회 통한 사무국세대전환 평가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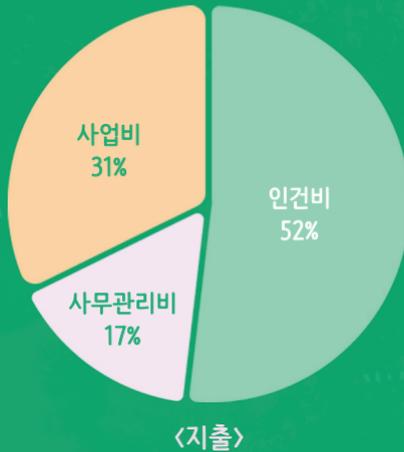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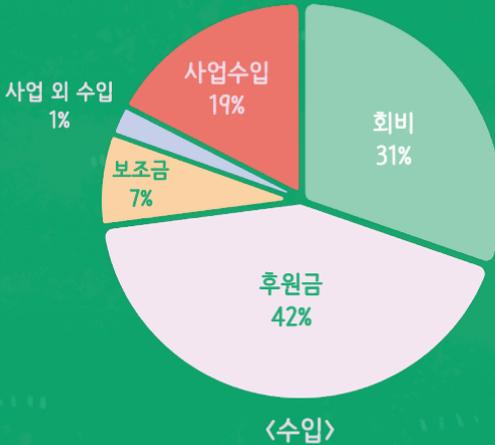
1월	3분기 재정보고 활동가 보호 : 지침에 대한 자문요청 및 상담 프로그램 기획 활동가이드라인 마련 : 지침에 기반한 활동 가이드라인
2월	활동가보호 매뉴얼에 기반하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 마음과 상담프로그램 진행, 혁신 WIFI 노무상담을 통해 난센 노동조건 진단
3월	21차 운영위원회 통해 2017년 활동 평가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2017년의 활동목표에 따라 활동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난센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활동방향을 결정하고자 사업계획과 평가를 진행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열린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탄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단위의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난센은 2019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난센의 가치와 활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난센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재정 보고

제9기 2017.04~2018.03

2017년에는 재정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체계화를 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회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고, 분기별 감사로 재정보고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9기 회계내역 중 1~3분기(2017.04~12)까지 감사 받았고, 2018.04.06현재 4분기 (2018.01~03) 및 연간 회계감사 중입니다. 이에 회계 감사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보고서〉

대분류	항목	예산	결산						
			전체	회계단위					
				금액	일반회계	난민긴급 지원사업	난민아동 지원사업	외부인건비 지원사업	서울시난민 인권옹호사업
전기이월금		35,230,398	35,230,398	17,764,028	17,466,370	-	-	-	
수입	회비	82,796,000	80,980,000	80,980,000	-	-	-	-	
	후원금	40,580,000	110,863,900	83,638,900	1,325,000	-	25,900,000	-	
	보조금	-	18,000,000	-	-	-	-	18,000,000	
	사업수입	95,742,000	48,686,797	2,968,500	-	45,717,300	1	996	
	사업외수입	-	1,933,484	803,579	19,474	34,836	5,014	1,070,581	
수입계		219,118,000	260,464,181	168,390,979	1,344,474	45,752,136	25,905,015	19,071,577*	
지출	운영 관리비	인건비	113,810,400	104,856,450	88,069,440	-	-	16,787,010	-
		사무 관리비	35,002,000	35,289,900	28,421,406	474,494	6,394,000	-	-
	사업비	93,190,000	62,246,786	688,196	5,654,680	36,931,800	-	18,972,110	
지출계		242,002,400	202,393,136	117,179,042	6,129,174	43,325,800	16,787,010	18,972,110	
차기이월액		12,345,998	93,301,443	-	-	-	-	-	

*서울시 보조금으로 총 수입은 18,020,577원이나, 사업 중 지출항목변경으로 선 지출 후 돌려받은 금액 1,051,000원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수입/지출내역〉

사업명	지원처	수입	지출	비고
시민교육 / 난민 에세이집 발간 사업	서울시민	18,020,577	18,972,110	수입내역에 난센 자부담비용이 제외되어있어 잔액이 음수
활동가보호 사업	러쉬	4,500,000	4,500,000	
난민아동지원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47,752,136	43,325,800	양육, 보육,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난민긴급지원 사업	개인후원	1,344,474	6,129,174	의료, 주거 및 아동지원
외부인건비지원 사업	로펌공익네트워크	25,905,015	16,787,010	난민소송코디네이터로 2018.08.31까지 인건비 지출예정
합계		95,522,202	89,714,094	

난민인권센터는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후원자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1. 분기별 회계 감사와 연 회 사업 감사를 받습니다.
2. 재정현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실습니다.
3. 회원 및 후원자 명단을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4. 연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총회에 보고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후원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개인후원

강계수 강미리 강미순 강민호 강보경 강성곤 강수일
강용자 강은정 강중권 강재영 강혜옥 강지혜 고병주
고보람 고순례 고지혜 곽현미 곽현희 구 수 구대희
구미소 권광희 권기호 권민정 권보람 권승섭 권양해
권오경 권은숙 권인희 길광숙 김 진 김 탁 김건우
김경민 김경연 김경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기언
김기정 김대영 김도인 김돈희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철 김범수 김별샘 김병규 김병학 김보경 김보미
김상균 김셋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성호
김세웅 김세진 김소형 김수인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십지 김아연 김연주 김영아 김영진
김영철 김영환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원우 김유리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인섭 김장현 김재원 김정숙 김정호
김정호 김제현 김종철 김종훈 김준길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우
김진호 김창훈 김태정 김한결 김항범 김해영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국
김형수 김형숙 김형준 김혜경 김혜린 김호진 김홍희
김효은 김희정 김희진 나 진 노광국 노민규 노혜영
도운수 류 리 류은별 류은지 류재민 류진희 마 진
맹희재 목승민 무지개 문석현 문아영 문예린 문정은
문해지 민병철 민인석 박 총 박경주 박근희 박기숙
박기준 박다혜 박도성 박도영 박민웅 박봉정숙
박상용 박상희 박서정 박석환 박소연 박수근 박순애

박승호 박신서 박신자 박영아 박예지 박유미 박유진
박윤애 박윤주 박은화 박재연 박정아 박정옥 박정임
박정진 박정현 박재경 박종인 박주연 박지옥 박지혜
박진아 박찬옥 박필모 박한수 박현빈 박혜정 박효순
배기영 배수현 배의철 백기정 백승희 백신옥 백인옥
베드로닐라수녀 변다희 변달석 변수현 서동일 서민혜
서승연 서영우 서영호 서윤경 서정애 서지연 서홍석
석은지 선안남 성덕규 성유저 성준범 소다미 손숙희
손인배 손주환 손지민 송기돈 송영우 송영훈 송인섭
송지혜 송하진 신가영 신기환 신난희 신동엽 신동진
신서원 신성찬 신성혜 신우승 신지원 신형준 심가현
심동훈 심민호 심영애 심요섭 안희서 양은혜 양정화
양희정 양희주 엄정숙 여지호 오대남 오민영 오승민
오영윤 오인옥 오재원 오주영 왕 철 우복남 원종일
위은진 유극란 유다미 유바의 유순관 유우근 유재완
유태식 유희인 옥정임 옥현아 윤근희 윤나미 윤명순
윤소정 윤순철 윤재하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현
이 미 이 슬 이가람 이건리 이경래 이경미 이경민
이경수 이경자 이경자 이경훈 이관명 이광문 이나경
이나단 이나라 이다은 이다은 이덕희 이도은 이도형
이두영 이명광 이병국 이병현 이복기 이상국 이상환
이상훈 이서윤 이선미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만 이순형 이슬이 이순만 이승민 이승운
이승현 이승휘 이영미 이예은 이예진 이외숙 이우엘
이우진 이유나 이은구 이은신 이은애 이은주 이은현
이 일 이재복 이재호 이정명 이정원 이종연 이종영
이주영 이주인 이준호 이지연 이지연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창희 이충민 이해리 이향주 이혜숙 이화영

이효진 이훈희 임경수 임남영 임병규 임세웅 임세진
 임영숙 장대영 장민정 장숙인 장영신 장예진 장용기
 장원섭 장유정 장유진 장은진 장인후 장지현 장현진
 전경옥 전문수 전수연 전영경 전영실 전용훈 전용희
 전인호 전지영 전지인 전천구 전현경 전현지 정 인
 정건희 정경식 정귀순 정다운 정대현 정도영 정동수
 정서희 정석화 정선애 정성식 정성욱 정세훈 정소진
 정솔미 정숙이 정솔기 정영섭 정유신 정인태 정지은
 정현숙 정혜선 정혜윤 정효은 조경현 조경희 조미숙
 조민규 조성희 조수현 조순실 조승규 조아라 조아라
 조영상 조은아 조장형 조주연 조지영 조현정 조희진
 주도경 주호석 차윤지 채주혜 채한기 천희원 최 유
 최 준 최가은 최동욱 최명주 최민욱 최서리 최소연
 최승우 최예다운 최용철 최은경 최은하 최일영 최일호
 최자영 최정인 최지연 최진택 최하니 최학열 케이이쉬
 하영희 하지민 한만일 한민희 한성민 한은영 한창완
 한혜원 한희정 허영호 현병두 홍두식 홍민경 홍석표
 홍선영 홍세화 홍원표 홍정인 홍정희 홍 현 홍현기
 황경희 황두원 황미영 황선주 황인재 황인형 황정
 하 황필규 해피빈 Lim Eunyong SOE MOE THU

활동

김경연 김규리 김규환 김두일 김세진 김예진 김우현
 김윤정 김진석 류은지 류태림 문세진 박경주 박예슬
 박지현 박푸른나래 선창희 신소희 신일식 신정은
 엄성은 오승민 오윤미 오혜련 우지원 이가람 이다은
 이다은 이마린 이슬기 이승훈 이재현 이진호 이탁건
 이현승 장예진 장유진 전지원 전하영 정수지 정윤주
 정제희 조선혜 조수현 조은소라 조혜나 진경호 진윤정
 채유성 최성경 편세정 한선영 홍민지 홍은표 Abdallah
 Abir Ahmed Ibrahim Natalie



단체후원

고려대학교 나들목교회 대구카톨릭산학협력 러쉬코리아
 목사침례교회빈민기도후원단 삭개오교회
 성가소비녀회인천관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심수도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에그뮤지엄애프로젝트
 엘그린비로 열린가정교회 천안천성교회 (주)비전네트워크

활동가 이야기

구소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센이 난민의 길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무심함과 다루고, 공권력의 무자비함과 싸우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난센은 세대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넉넉한 마음씨는 물론, 대표님, 고문님, 운영회원님, 감사님의 지원 덕분입니다. 난센의 전 활동가, 현 활동가 모두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의 짐을 덜고 그 자리를 자부심으로 채우길!

이현주

난센 아홉 살 생일을 축하드려요^^. 작은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아홉 해를 맞이 까지, 처음 시작하실 때의 마음으로 난센의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이 곳에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도록 오랜 시간 노력 해 오신 활동가들께도 박수 보냅니다. 힘을 때 마다 모두가 모두를 토닥이며 나이트를 늘려가는 난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의 추가근무도 기운이 납니다 ㅎㅎ. 아자지!!

이슬

안녕하세요. 이슬이에요. 얼마 전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핀셋으로 썬서서 뽑아주셨습니다. 으앙 운몸에 땀이 나면서 '아, 나만 인간은 금방 변질자가 될 종자로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동료들을 떠올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난민인 권활동을 한다고 박해를 받는다면 저는 손톱 밑을 찢리자마자 입을 열었을 것이고 저 대신 잡힌 동료들은 저를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 따뜻한 눈길로 '이해한다' '괜찮다'고 해줬을 것이다... (? 이상한 상상이지만 일보다 제 삶을 먼저 챙기는 동료들을 떠올리니 자꾸 이런 장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런 동료들에 더불어 '활동가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지지해주는 이 분들이 곁에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풀리지 않는 고민도, 무능감에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아직은 더 애써보고 싶습니다. 난민 곁에 있는 난센 곁에, 2018년에도 함께 해주주세요.

고은지

기적처럼 사람들이 모여 난센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어떤 물결들이 난센의 중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만져지지도, 어딘가에 담기지도 않지만, 분명 난센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난센이 지금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예될 수 없는 난민의 권리를 위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또 연결되며...

김연주

한동안 오롯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만 집중하다가 난센으로 돌아와 여러 삶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범한 삶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켜내며 살고 싶었던 사람,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 비로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 너무 긴 심사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그 사이에 가정이 생기고 지키고 싶은 아기도 태어나 힘들지만 힘을 내야했던 사람, 안전한 국가에 와서도 본국에 남은 사람들을 염려하며 본국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매일같이 하던 사람,

어렵사리 겨우 안전한 삶을 찾아 왔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절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왜 난민신청 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나며 이 사람은 쫓겨날 사람이라고 말하는 공무원을 만나고, 당신의 신념은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이 있는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받고, 꿈 같던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국적이 없어 이변엔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우물쭈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10만원 비자 수수료가 없어 그 돈을 벌러 다가가 단속되어 구금 되고, 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으려 갔다가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될뻔하고...

삶이 우연하게도 정말 힘든 순간을 맞아 그 과정을 견디어내고 헤쳐가고 있다고 말하기엔 그 과정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이 화가 나고, 답답한 일들이 난센의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눈곱만큼도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맨땅의 헤딩을 하며 여러 삶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분노라는 감정만 내뿜으며 활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난센과 이 난민판을 함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느린 우리지만, 믿고 함께하며, 괜찮다, 고맙다 표현해주는 난민분들을 만나고, 기부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을 먼저 격정하고, 난센을 계속 믿고 지지해 주는 회원님 한분 한분이 계시고, 뻣뻣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그 소중한 시간을, 열정을 기꺼이 난센에 쏟아 주시는 자원활동가님들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주세요

난민인권센터는 회원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한국거주 난민의 권리 회복과 시민연대, 제도개선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계절별 뉴스레터와 연간 활동보고서를 통해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난센 회원은 총회, 회원 정기 모임 등을 통해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MS를 통한 정기후원 신청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nancen.org 접속 후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메뉴를 통해 정기 후원을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CMS 후원을 원하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로 직접 보내기

정기후원을 하되, CMS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은행에 방문하여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 난센으로 연락 주시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33001-04-225091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후원문의 02-6384-3214(월-목),
refucenter@gmail.com (월-금)

